

2025. 12. 30.[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의원실) 02-6788-6425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관련 을지로위, 마트노조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2월 30일 (화) 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2월 30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마트노조,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입점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병덕 을지로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일, 권향엽, 정진욱, 안도걸 국회의원 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자구노력 없이 폐점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의 책임 회피를 위한 구조조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MBK가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 해체만을 고집한다면 총력 투쟁을 비롯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이번 회생계획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점포 폐점 등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구조조정이며 먹튀 시나리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도걸 의원도 “MBK가 제출한 희생계획안은 희생이 아닌 시한부 연명 시간끌기다”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제대로 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MBK의 경영은 무책임을 넘어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폐점은 곧 홈플러스의 지속가능성을 분해하는 것이다”며 “MBK는 대한민국 제2의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를 희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MBK는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하는 주사위 굴리기 중단해야 한다”며 “MBK의 탐욕과 무능으로 노동자들이 이미 긴 시간 고통을 받은 만큼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 희생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마트노조 기자회견문

홈플러스의 시한부 회생계획안, 청산계획안 제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빛으로 망가진 회사를 또 다시 빛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단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홈플러스의 ‘진짜 살길’을 찾기 위해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어제(29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결국 5차례나 미뤘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회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담합니다. MBK가 내놓은 소위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은 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알짜 자산을 다 팔아치우고 껍데기만 남기는 ‘기업 해체 선언’이자 ‘시한부 사형 선고’입니다.

MBK는 2015년 인수 이후 지금까지 홈플러스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활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고금리 이자 비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운영자금마저 없어 물품대금을 2월로 미루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주범인 MBK는 단 10원의 자금 투입도, 최소한의 담보 제공도 거부하며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MBK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MBK의 회생계획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안전한 먹튀’를 위한 “청산 계획안”일 뿐입니다.

MBK는 메리츠로부터 3,000억 원의 DIP 금융을 수혈받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빛일 뿐입니다.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마구잡이 폐점과 자산 매각 계획은 홈플러스를 더욱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홈플러스 사태에 즉각 개입하여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 수많은 협력업체의 생계가 달린 민생의 현장입니다. 사모펀드 MBK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멸절된 기업을 공중분해 시키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MBK가 실질적인 자구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전문 경영 주체를 찾는 등 근본적인 회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MBK의 책임 회피를 위한 구조조정에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MBK가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 해체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2월 총력 투쟁을 비롯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12. 30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